

원수의 딸을 사랑한 男子... 그를 기다리다 돌이 된 女子

아시아 문화 (33)
원류를 찾아서
4부 캄보디아 편

6 르띠싸임과 경으라이

캄풍초남 = 김경인 기자 kki@kwangju.co.kr

‘경으라이와 르띠싸임의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전설이다. 악마의 엇나간 사랑에서 짝퉁 비극은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하염 없이 기다리는 여자는 망부석이 되면서 끝을 맺는다.

질그릇의 원료가 되는 황토의 빛깔이 아름다운 도시 캄풍초남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90km가량 떨어져 있다. 5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양 옆으로 드넓은 평원과 고무나무가 즐비하다. 황토로 된 비포장 도로를 3시간 정도 지나서 다다른 캄풍초남 입구에는 동화책이나 등장할 법한 상징물이 서 있다.

캄보디아 대부분 도시 입구는 머리가 7개 달린 커다란 ‘나가상’(수호신)이 지키고 있지만 캄풍초남에서는 이 동상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남자를 붙잡기 위해 땅 바닥에 엎드려 애타게 손짓하는 여자와 목놓아 부르는 소리에도 오지말라며 길을 떠나는 남자, 흑여 백마 탄 왕자와 공주쯤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동상의 주인공은 경으라이와 르띠싸임으로, 마을의 상징이 될 만큼 유명한 전설의 인물들이다.

옛날 이 마을에는 행복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한 악마는 부인을 잡아먹은 뒤, 부인의 모습으로 둔갑해 남편과 함께 생활한다. 악마는 남편과 ‘경으라이’라는 여아쁜 딸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만 전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10명의 딸은 눈엣가시였다. 결국 10명의 딸을 지하세계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눈을 빼내고, 다리를 잘라버린다.

이때 살아남은 막내가 언니들을 데리고 탈출을 감행하고, 왕국의 왕자와 결혼해 ‘르띠싸임’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르띠싸임이 우연히 마주친 악마의 딸인 경으라이의 미모에 반해 버린 것이다. 르띠싸임은 경으라이가 악마인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소개하고 결혼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경으라이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악마의 딸이라는 사실과 르띠싸임 이모들의 눈을 어머니가 빼버린 것을 알게 되고 갈등 하게 된다. 경으라이는 고된 끝에 르띠싸임에게 말하고 만다. 이모들의 눈이 감춰진 지하세계가 함께 르띠싸임이 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용감했던 르띠싸임은 이모들에게 눈을 찾아주기 위해 지체 없이 지하세계로 떠날 준비를 한다. 경으라이는 르띠싸임을 붙잡지만 매를 차게 거부당한다. 경으라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모들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에 떠날 것을 결심하고 길을 나선다. 하얀 백마를 타고,

경으라이는 르띠싸임을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르띠싸임은 돌아오지 않았다. 슬픔에 빠진 경으라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산이 되었고, 그 산은 경으라이 산으로 불리게 된다. 지금도 산에는 돌로 변한 경으라이 망부석이 있다. 건기(11월~다음해 5월)에는 차를 타고, 우기에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다. 더욱이 산을 보기 힘든 캄보디아에서



질그릇으로 유명한 캄보디아 캄풍초남 입구에는 길을 떠나는 남자와 그를 애타게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여자의 전설 ‘경으라이와 르띠싸임’ 동상이 서 있다.

/캄풍초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악마의 엇나간 장난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운명 캄보디아 망부석 전설, 한국 박제상 설화와 유사 “한 이야기 변형돼 각국 전파...아시아 문화 한 뿌리”

는 이 산을 신성시 여긴다.

마을 주민 무영 스톤(43)씨는 “나는 경으라이와 르띠싸임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는 또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며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경으라이의 망부석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전설이나 민담이 그렇듯 이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갈래로 형태가 바뀌었다. 특히 경으라이와 르띠싸임이 만나게 된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스토리 중 하나가 신의 장난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르띠싸임이 이모들의 눈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는 지하세계에 도착해서 보라며 편지 한통을 건넨다. “경으라이를 보거든 그녀를 죽이거라. 그는 무리의 원수이자 악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은 르띠싸임이 잠시 잠든 틈에 내려와 “경으라이와 결혼하거라”라고 편지 내용을 바꿔버린다. 인연이 없었던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결국 비극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든 이국땅에서 한국에서 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망부석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프놈펜 남서쪽 해안 케프에서도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돌이 된 아내 석상’이 마을의 상징이라고 한다. 캄보디아 곳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망부석 전설을 들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망부석 설화 중에는 박제상이 일본에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체포돼 죽자 그의 아내가 산자락에서 돌이 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 100대 스토리 발굴 사업’에 참여한 중앙대 방현석 교수는 “하나의 이야기가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아시아 각국에 스며 있다”며 “자기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열거는 같다”고 말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 최대 질그릇 생산지 ‘캄풍초남’

전통기법 代이어 전수... 캄보디아인 생활의 일부



‘캄보디아의 가마.’

주황색이 아름다운 도시 캄풍초남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사용되는 질그릇의 최대 생산지다. 캄풍초남이라는 지명도 초남(도자기·그릇)과 캄풍(항구)이 합성돼 만들어졌다. 그릇의 항구인 셈이다.

마을사람 대부분은 아직도 집에서 물레를 돌리는 전통 기법으로 질그릇을 빚는다. 도공들은 대를 이어 농사일과 함께 그릇을 만들어 왔다. 캄풍초남 어디를 가더라도 집 앞마당에서 질그릇을 말리는 모습이 흔할 정도다. 이곳이 질그릇 최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질

좋은 점토 때문이다. 질 좋은 점토를 빚어 물레질로 모양을 만든 뒤, 앞마당에 쌓아두고 지푸라기를 이용해 불을 지퍼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그릇은 우기에는 배에, 건기에는 우마차에 실려 전국으로 배달됐다.

그릇에는 특별한 무늬를 새기지 않고, 우리 도자기처럼 유약을 바르지도 않는다. 화려하지는 않고 투박한 이 그릇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다. 쌀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만들고, 물을 기르는데 사용한다. 아직도 대도시 가정에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화로를 이용해 전통 요리를 만들기도 한다.

/캄풍초남=김경인기자 kki@

신양파크호텔 가정의 달 페스티벌

가족 · 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특별메뉴〉 (다사이즈 주문시 (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제외)고기탕수육(大) → ₩41,800 → ₩30,800 전 가 복(大) → ₩2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 (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1일~10월,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 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취 폐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0원) 6개월 : 125만원 1년 : 248만원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